성화 스님 인터뷰

“선명상 진면목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 기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이제는 정신 문명의 시대입니다. 국민들의 정신을 선명상으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이끌겠습니다.”

2024불교도대법회 개막을 한달여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집행위원장 성화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이 “정신 문명을 매개로 하는 마음건강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화두로 부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계종은 9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에서 ‘5분 선명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5분 선명상’은 번잡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한 명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성화 스님은 “세대와 사회갈등, 정치적 대립 등으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국민이 많고, 특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아무리 풍요로워도 행복해질 수는 없고 정신적 고통을 물질적인 조건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5분 선명상’을 강조한 성화 스님은 “바쁜 일상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5분 선명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성화 스님은 ‘정신 문명 시대’를 강조하고 “국민들의 정신을 선명상으로 건강하게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개발한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도 공개된다. 이는 국민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이다. 국민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제선명상대회 이후에는 선명상 법사와 지도사를 양성, 전국 사찰과 템플스테이에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성화 스님은 한국의 선명상에 대해 “세계 정신문명을 선도하는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괴로움이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제4차 산업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에도 여전하고 물리적, 물질적 문명의 발달만으로는 평안하지 못하는 한계에 걸려있다”면서 “물질문명을 넘어 정신문명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 제5차 산업혁명은 정신문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국제선명상대회는 선명상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명상은 궁극적으로 간화선, 즉 높은 수행의 길로 가게 해주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조계종은 108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선명상 교재를 적극 제작하고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일반에 선명상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우리아이가 우리 미래다”

8월 23일, 저출생극복본부 출범
종교계 대표 진우 스님 등 함께
“출산 · 양육 존중받도록 할 것”



국내 종교계,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가 ‘저출생극복추진본부’를 출범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저출생극복추진본부는 8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사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대규모 조직을 만들기는 처음이다.

저출생극복추진본부는 종교계,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등 민간 주요분야가 총망라됐다. 각계의 대표적인 인사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종교계 대표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경제계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금융계 대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학계 대표는 이광형 KAIST 총장, 방송계 대표는 박민 KBS 사장이 맡았다.

각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들은 ‘우리아이 우리미래’라는 표어 아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 스님은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7대 종교계의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인간 생명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될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불교계가 시행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선명상센터 건립 등을 설명하며 “긴장, 경쟁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불암감을 해소시켜 주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의 활동 계획 발표 후 공동대표들은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 계획과 협력 의지가 담겼다. 또 이날 출범식에서는 방송인 홍현희, 제이슨 부부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저출생극복추진본부는 앞으로 주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식 명칭도 확정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민주당 전통문화특위 “불교 정책 제도 개선 노력”

8월 27일, 봉녕사서 정책 워크숍
전통문화 · 불교 현안 의견 공유
김영배 의원 “제도 잘 살필 것”

조계종과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별위원회가 8월 27일 수원 봉녕사에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교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은 22대 국회 출범 후 전통문화특위가 마련한 첫 공론의 장으로 전통문화 보전과 지원뿐 아니라 사찰림 가치 평가, 봉안시설 설치 등 불교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우봉 스님,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특위 위원장 김영배 의원과 이수진, 김동아, 염태영, 전진숙, 김병주, 곽상언, 이광희, 박희승, 민병덕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본격적인 워크숍에 앞서 전통문화불교특위 위원들은 봉녕사 대적광전을 찾아 참배했다. 주지 진상 스님은 의원들을 환영하며 “부처님 가르침 중 신, 구, 의 삼업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많다”면서 “그중 말로써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이 있다. 국회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이 답답함보다는 뭔가 소통이 되는 시원함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참배 후에는 봉녕사 승가대 학감 도연 스님의 안내에 따라 경내를 둘러봤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는 8월 27일 봉녕사에서 워크숍을 갖고 불교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불교 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불교계 관련 주요 입법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불교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 국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특위 위원들이 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게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도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리가 이것을 왜 보존하고 가꿔야 하는지 울림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 워크숍에서는 선명상 및 전통사찰 관련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어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방식 개선 △전통사찰 경내 지목 현실화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재평가 및 보상제도 도입 △ 문화재보호구역 내 봉안시설 설치 허용 △일반동산문화유산(비지정문화유산) 긴급 보존 처리 근거 마련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근거 마련 등 불교계 관련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워크숍에 앞서 김영배 위원장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70% 이상이 불교와 관련 유산인 만큼 보존과 계승 발전에 힘써야 한다”면서 “법과 제도, 조직, 문화 등 다각면으로 각별히 협력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수원 봉녕사=임은호 기자

조계종, 해인사에 화합·종법 준수 당부

“9월 30일까지 방안 도출”
갈등 지속 땐 해종행위 간주
해인사 원로, 주지 사퇴 촉구

해인총림 해인사가 9월 30일 산중총회를 앞두고 방장 불신임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대중화합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28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명의의 공문을 해인사 대중에게 발송했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표상으로서 위상을 대표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총림 내부 대중들 간의 갈등 모습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승가공동체의 최고 덕목으로 화합을 강조하며 “9월 30일까지 문중간의 중지를 모아 해인총림의 위상에 맞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총무원에서의 중재역할도 제안하면서 “종단의 우려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내부 문제가 사회로 더욱 더 비화되고 갈등이 지속 확산된다면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종헌종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인총림 원로중진스님들이 주지 혜일 스님에게 방장 불신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월 29일 호법부에 해인사 주지의 승려법 위반 내용이 명시된 고발장을 제출했다. 9월 10일 오후 2시 경내 보경당에서 ‘해인사 안정과 총림 화합을 위한 재적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